

정부 또 '수도권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지방 주택시장만 죽이니

"광주, 미분양 넘치는데 일부 전세난 '기현상'도... 특단의 대책 내놓아야"

미분양 해소 등 지방 주택 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광주·전남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은 주택 거래 중단과 전세 품귀 현상 등 침체의 과정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19일에는 수도권의 그린벨트 제제를 끌자로 한 서민주택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8 월까지 광주의 아파트값은 평균 0.2% 떨어졌다. 반면에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평균 5.4% 상승해 고물가와 고금리의 학파 속에 광주 집값은 뒤에 '곤두박질' 했다.

광주의 집값 하락은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적체 등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도 올해 집값 상승률이 1.1%에 그쳐 전국 평균은 물론,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4.8%)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서울의 경우 올해 집값이 6.1%나 올라 집값을 안정시켜주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무색하게 했다.

특히 광주 등 지방 부동산시장은 주택 거래 침체 속에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8월 말 현재 광주의 아파트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은 73.5%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52.5%)에 비해 21%나

높은 것으로, 1억원 짜리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이 7천350만원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대거 미루며 따라 서민들의 전세 부담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또 광주의 경우 남구 봉선동과 진

월동 등 '인기 지역'에 대한 전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전세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지역은 학군 및 생활편의 시설 확충 등에 따라 수요자들이 쏟아져 있는 데다 최근 신규 아파트의 대형화 추세까지 맞물리면서 중소형을 중심으로 한 전셋집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지방 주택시

장 침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정부는 향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책을 잇따라 쏟아낼 예정이어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 서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 그린벨트 제제를 끌자로 하는 등 지방 시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올 들어 지방 미분양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미분양 해소 등 지방 시장 회생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또 11일 발표될 종부세 완화 방침도 대부분 서울 강남권 아파트가 수혜 대상이어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품니는 럭셔리 넥타이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7층 MCM 넥타이 코너에서 다이아몬드·금·스와로브스키 큐빅 등을 사용한 럭셔리 넥타이를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판매가격은 블랙 타이 1천만원, 화이트 타이 500만원.

〈광주신세계 제공〉

중저가 선물세트 '효자노릇'

추석 광주지역 유통가 매출 신장 주도

(269%)·김(181%)·청과(209%)·곶감(346%) 세트 등의 매출이 수직상승했다.

롯데광주점에서도 올리브유·식용유를 비롯한 조미식품(43.8%), 통조림(39.7%)·김(54.1%)·청과(14.9%) 등 저가형 가공식품 선물세트가 선전하면서 전체 매출을 주도했다.

최근 수년동안 평점 최고의 선물로 자리를 굳혀온 상품권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해 광주신세계와 롯데광주점의 상품권 매출은 전년에 비해 각각 2%와 3% 증어들었다.

김기봉 광주신세계 마케팅 팀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통조림이나 비누·치약세트와 1만~3만원대 잡화류가 추석선물로 부활한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호남지역 대학생 대상

보해 아이디어 공모전

11월 7일까지 두달간

호남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전국 유일의 공모전인 '보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의 막이 올랐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일건우)는 8월부터 오는 11월7일까지 두달간 광주·전남·전북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공모전은 보해가 지역 대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상상력과 숨은 아이디어를 막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에게 한해 개최됐던 공모전을 지난해부터 전북지역까지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 수완지구내 단독주택지 매수고객과 단독주택 입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1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일산·파주 등으로, 해당 도시의 단독주택 및 빌라 견학을 통해 수완지구 단독주택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행사는 건축사와

을 추석 광주지역 유통가에서는 10만원대 이상의 선물 대신 5만원 이하의 실속있는 종·저가 선물세트가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경기흐름을 반영하듯, 품목별로 매출증수가 적지 않아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굽비와 한우정육의 매출은 지난해 대비 각각 1.5%

역신장했으나, 정관장 홍삼과 건강보조식품은 36%와 11%가 올라 대조를 보였다.

가격별 선물군도 5만~10만원대

매출증성이 눈에 띠었다. 멀티

수도권 단독주택 견학 버스투어

토공 광주전남본부, 수완지구 매수 고객 대상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한우석)는 오는 25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단독주택 선진지 견학 버스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 수완지구내 단독주택지 매수고객과 단독주택 입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1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수완지구내 단독주택용지는 기본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공원 및 녹지공간 등이 풍부하다. 2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3.3m당 분양가는 106만2천600원~133만6천500원이다. 현재 136필지가 분양 중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来光

사공일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장(사진)이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 초청으로 18일 광주를 방문, 수완지구 라마다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날 지역 경제인들에게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보고한 뒤 기업의 규제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전남 농업법인 '속빈강정'

작년 1,017개로 7.5% 늘었지만 채산성은 되레 크게 악화

지난해 전남지역 등 전국 농업관련 법인들은 외형적인 성장세 속에서도 채산성은 되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농업법인은 5천854개로, 1년 전(5천650개)보다 3.6%(204개) 증가했다.

또 농업법인 종사자 수도 3만3천420명으로 1년새 6.3%(1천993명)

늘어나는 등 농업 부문의 외형적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농업 관련 법인들의 매출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전

체 농업법인 판매액은 4조6천65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또 법인당 평균 판매액도 11억9천만 원으로, 1년 새 9.4%나 늘었다.

하지만 이들 법인의 수익성은 되레 악화됐다. 지난해 농업법인들의 매출 1천원당 당기순이익은 16.2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새 매출 1천원당 순이익이 43.4%(12.4원)나 낮아진 것으로, 제조업의 매출 1천원당 영업이익(58.8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역 기업인 대상 디자인 경영 교육

(재)광주디자인센터, 대기업 전문가들 강사 초청

'디자인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인을 위한 고급 디자인경영 교육이 마련된다.

(재)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봉규)는 "국내 저명한 디자인전문가 및 CDO(최고디자인책임자)를 초

빙, 2008년도 디자인경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경영혁신과 디자인전략 ▲상상의 디자인경영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브랜딩&네이밍 등으로 이어

진다.

초빙강사는 ▲김영준 삼성전자 디자인연구소장(상무) ▲김진 LG전자 디자인연구소장(상무) ▲박영복 서울대 교수 ▲손해원 LG로스포인트 대표 ▲피터 리 게임 인터내셔널 이사 ▲정용빈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원장 ▲권은숙 서울 디자인립니다 감독 ▲정성균 주보루네오 부사장 등이다. 문의 (062)611-5020.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건물 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기회 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5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기름값 절약만으로 심야전기 보일러를 빌려쓰는 제도!

지금 즉시 신청하십시오! 최우수 보일러 경동, 일본으로 수출하는 대성!

생산공장 가격으로!!! 딱 1개월 특혜설치

난방면적 (m ²)	보일러용량 (리터)	보일러온수기 (kw)	한전 불입금	생산공장 가격	현재대리점 가격	한전불입금포함 소비자가격
23~27(7)	500	6kw	250,400	2,929,600	3,700,000	3,230,000
42~47(13)	1000	13kw	743,600	3,456,400	4,500,000	4,070,000
49~56(16)	1200	15kw	884,400	3,615,600	4,950,000	4,320,000
59~69(20)	1500	19kw	1,166,000	3,634,000	5,680,000	4,720,000

*온수기는 가족수에 따라 용량을 선택 해야 합니다. (100L, 200L, 300L)

속보 주거지역 금년내 심야전기 용량제한됨

*9월 1일자로 69m² 이상(심야전력 20평)은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총 열식 심야 전력 호당 공급 용량 제한치 변경.

1차 : 시행일 2008. 3. 3(월) 접수분부터
변경전: 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 호당 50kw까지 공급

변경후: 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 호당 30kw까지 공급

2차 : 시행일 2008. 9. 1(월) 접수분부터
변경전: 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 호당 30kw까지 공급

변경후: 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 호당 20kw까지 공급

한국전력공사협약제품
경동 대성 심야전기 사업부

연/중/무/휴

주·야 상담대기

<p